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준비 박차

제1회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 갖고 시범사업 지침 수립 위한 방안 논의

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0월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11월에는 사업 추진을 전담할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12월에는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무주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돼 무주형 기본소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16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에는 이날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에는 노창환 위원장과 허동일 무주 기본소득연대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시범사업 지침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 주민들이 궁



지난 16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에서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급해하는 사항을 비롯해 사업의 본격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 전반이 공유됐다.

노창환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노동간 소득과 사회서비스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군민이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동력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주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지난 19일에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무주군의회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주민 홍보를 거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무주=손홍기 기자

"군민 작은 목소리도 군정 반영"

장수군,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농어촌 기본소득 설명회 열려

장수군은 22일 장계면 일정을 끝으로 2026년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 및 '농어촌 기본소득 설명회'를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군민과의 소통은 지난 19일 장수읍을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경로당 현장 의견청취 △군정 운영 방향 설명 △농어촌 기본소득 설명 △군민과의 대화 순으로 운영됐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과 눈높이를 맞춘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이 묻고 군수가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



2026년 장수군민과 군수와의 대화 / 장수=김민서 기자

해 자유롭고 열린 소통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국·과장 등 군 주요 간부들이 동석해 군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답변하고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안내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

특히 올해는 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가 시작되는 해로 기존의 소통행사에 '농어촌 기본소득 설명회'를 병행하여 정책 추진 배경과 방침 등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설명하고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이번 대화에는 총 120여 건의 제안과 건의사항이 접수됐으며 장수누리랜드 명품관광지 조성, 파크골프장 조성, 실내체육관 건립, 상수도 물복지 확대사업, 참샘골 행복주택 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군정 핵심 현안도 공유됐다.

군은 접수된 건의사항을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하고 주요 현장을 점검해 장수발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감염취약계층에 방역물품 지원

장수군은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감염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장수군보건의료원을 중심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9개

소와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 등 총 13개 시설이며, 방역물품은 KF94 마스크 1,500매, 아동용 마스크 900매, 소독티슈 40개, 핸드워시 40개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지원은 시설 이용자들의 일상적인 감염 노출 위험을 줄이고 집단생활 공간에서의 전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보호자와 종사자들의 심리적 불안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 창단식

호남지역 지자체 중 최초 테니스 선수단 구성

진안군은 22일 오후 군청 강당에서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단식에는 대한테니스협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시군 테니스협회, 진안군 테니스협회 동호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선수단 출범을 축하했다.

행사는 선수단 창단 결과보고를 시작으로 선수단 소개, 창단선언 및 창단기 전달, 내빈 축사, 유니폼 및 라켓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창단된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은 감독 1명(조효익), 선수 4명(임은지, 김민서, 엄세민, 이현이)으로 구성됐다.

선수들은 국가대표 상비군 경력 또는 주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실력파들로, 향후 각종 전국대회에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은 역도선수단에 이어 진안군이 두 번째로 운영하



전북도민체전 제63회 테니스선수단 창단식 모습

는 직장운동경기부로, 호남지역 지방지치단체 가운데 테니스 종목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한 직장운동경기부다.

선수단은 올해부터 각종 대회에 출전해 진안군과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선수단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전준성 군수는 창단사를 통해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이 창단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2026년 진안군은 테니스선수단 창단과 전북도민체전 개최 등 적극적으로 도전적인 스포츠마케팅이 이어지는 만큼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30일까지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생 모집

무주군이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을 운영하며 교육생을 모집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교육 희망자 모집은 이날 30일까지 진행되며, 수강 신청은 각 읍·면 산업팀과 농업인상담소,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팀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농업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총 8회에 걸쳐 운영되며, 내추럴 초이스 박근형·김소영 강사와 '식품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팀에서 진행되는 교육 모습

위생안전정보원' 전문가 강사가 참여한다.

교육 내용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필요성과 가공 기술, 식품위생과 안전관리, 마케팅 및 소규모 유통 전략 등 농산물 가공 창업에 필요한 기초 이론 중심으로 구성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상반기 농공단지 기업 간담회' 가져

진안군은 22일 홍삼한방 다목적복합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농공단지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2026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진안군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추진 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전북중소벤처기업청)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주요 사업 안내 △진안군 일자리센터 지원사업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진안군청에서 열린 상반기 농공단지 기업 간담회 모습

취수 보고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용역 결과 보고 등이 진행됐다.

기업인들은 군정의 기업지원 시책과 산업단지 기반 시설 확충 계획 등을 함께 논의하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신규 선정자 교육

진안군은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국비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 농업인 14명을 대상으로 신규 선정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선정자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영농정착지원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및 사용 기준, 영농 이행에 따른 의무 사항 안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선정 연도를 포함해 최대 5억 원 한도의 후계농 육성자금(용자)도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협의회 가져

진안군은 지난 21일 관내 사과 영농조합, 작목반, 토마토 공사회 등 농업인 단체 대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과수화상병, 탄저병, 돌발해충, 토마토블라방 등 주요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방제를 위한 약제 선정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은 개화전 1회, 개화기 2회 등 총 3회분에 대해 방제 약제를 선정했으며, 최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사과 탄저병 1회분과 돌발해충 1회분, 유충 피해가 심각한 토마토블라방에 대해서는 2회분 방제 약제를 각각 결정했다. 군은 결정된 약제에 대해 관내 신청 농가에 적기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돌발해충은 이상고온에 따른 대발생 우려가 큰 만큼 공동 방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국내 첫 발견 이후 전국으로 확산 중인 토마토블라방 역시 유충 발생 초기 밀도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수확량 감소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